

우리들의 모습



3월 15일(주일) 교구청에서 교구장 주교님 주례로 예비신학생 개강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신학생들과 예비신학생들, 부모님, 본당 성소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성소의 꿈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한해 예신생들이 힘차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신 개강미사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4월 21일 안셀모
예비신학생 - 심의준 (개운동, 중3)
- 4월 25일 마르코
예비신학생 - 신상훈 (서문동, 중2)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제대(祭臺)와 감실(龕室)

성당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 감실?

바로 '제대'입니다. 그래서 성당 안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지요. 제대는 미사가 봉헌되는 성찬의 식탁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당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성당에 드나들 때 절을 하는 장소가 바로 제대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바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당의 중심인 제대 위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재현된다"며, "제대는 하느님의 백성이 초대되는 주님의 식탁이기도 하다"고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는 '감실'이라는 것도 있지요. 감실은 성체를 모셔 둔 곳입니다. 보통 황금빛의 작은 금속 상자로 되어 있고, 곁에는 붉은 성체등이 켜져 있어요. 이는 '주님의 몸'인 성체가 감실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실 앞을 지날 때도 신자는 감실 안의 '성체'를 향해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사제와 허락된 사람 외에는 감실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감실은 열쇠로 잠가 둡니다. 미사처럼 감실을 여닫을 일이 있을 때는 감실 앞에 열쇠를 두었다가 여닫지요.

예신생 친구들도 앞으로 사제가 되어 제대에서 주님의 몸인 성체를 축성하고, 감실 안의 성체를 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요!

1.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 일 자 : 4월 26일(주일)
- 장 소 : 대구 신학교
- 대 상 : 등록된 예비신학생, 부모님, 성소담당자



2026년 4월

예비신학생 편지



< 2026년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예신생과 나누는 성인(聖人) 이야기

- 성녀 카타리나(Catharina, 1347~1380) -
축일 4월 29일

성녀 카타리나는 1347년 이탈리아 시에나(Siena)에서 부유한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카타리나는 6세 때 성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으로부터 축성을 받는 신비 체험을 했어요. 이때 꼬마 카타리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카타리나가 성장하자 부모는 결혼시키려 했지만, 어린 시절 하느님과 약속을 이야기하며 결혼하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자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녀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당시 유럽은 무서운 전염병인 페스트가 유행하던 때인데, 사람들은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육체가 쇠진할 정도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지요. 카타리나가 간호사들의 수호성인이 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행과 희생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그녀는 결국 1380년 4월 29일, 33살의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녀 가타리나는 수많은 서한을 남긴 신비가로서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도 타인을 사랑하라.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했듯이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타인을 사랑하라. 너는 나에게 보답 하려 하지 말고 오직 타인에게 이 사랑을 주어라.”

- 카타리나의 저서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카나리나에게 하신 말씀 -

신학생으로부터~



우리 예비신학생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꽃이 피고 따듯해진 계절인데 환절기 감기나 꽃가루 알레르기는 없나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길 바라요.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예비신학생 친구들은 반이 바뀌고,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겠네요. 이제 친구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학교생활에도 익숙해졌겠지요.

사실 무언가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1년 동안 신학교를 떠나 있다가 다시 학교에 돌아오니 좀 어색했어요. 새로 만나게 된 신학생들도 있었죠. 처음엔 당연히 말 걸기도 어색했지만, 같이 지내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같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느님도 한 번에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고 일주일 동안 하나씩 하나씩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 차근차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 없이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지고자 한다면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거예요. 혹시나 잘 안된다면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비신학생 친구들이 다 잘 해내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건강 조심하고 다음 모임에서 만나요!

구담 본당, 연구1
김기섭 요셉 신학생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할 수 있잖아... NFRDO